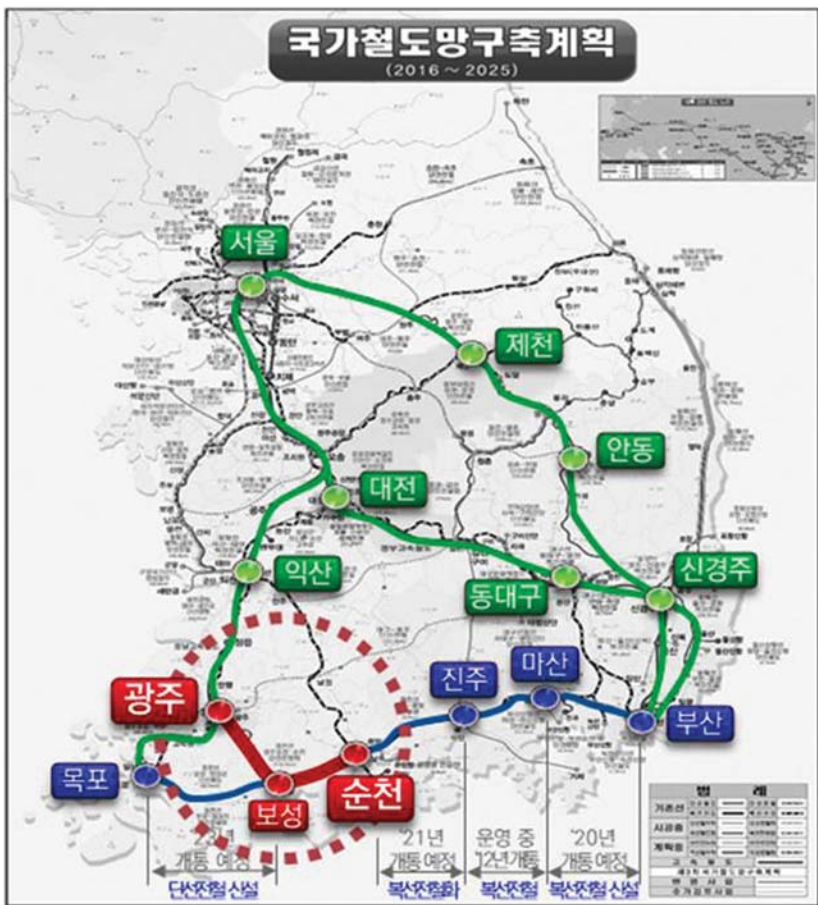


광주~부산 '2시간 열차시대' 열린다

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에타 통과
2027년 사업 완료...3시간 18분 단축



오는 2028년 광주~부산 '2시간 열차시대'가 개막된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개량과 전

철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에타)를 통과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순천 구간 전철

화사업' 에타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88·정책성 평가(AHP)는 0.653으로 이 사업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광주에서 순천까지 총연장 122km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 광주송정을 거쳐, 나주, 화순, 보성, 순천을 잇는 경전선은 기존선 48.7km를 포함해 모두 122.2km 구간에 1조7703억이 투입된다. 설계속도는 시속 250km다.

이 사업은 남해안 철도인 경전선 구간의 마지막 개량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다.

광주~순천 구간은 경전선 구간 중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다. 현재 목포에서 광주송정역을 경유해 부산의 부전역까지 무궁화호가 하루 한차례 운행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광주~목포~부산까지 준고속 철도망이 완성된다.

영호남권 준고속철도망이 연결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은 현재 5시간 42분에서 2시간 24분으로 3시간 18분 단축된다.

현재 건설 중인 보성~임성리 남해안 철도를 이용하면 목포에서 부전까지 운행시간은 6시간 33분에서 2시간 24분으로 4시간 9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성 시장은 "경전선 준고속 철도가 완성되면 광주~부산간이 2시간대에 연결돼 영호남권 신남부 경제권 기반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전선 열차가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되면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돼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14년 1월 에타에 착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에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5월 착수에 이남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이 에타를 통과하면서 남해안권 준고속 철도망의 완성으로 남해안 선벨트(SUN BELT)라고 불리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예정대로 2027년 사업이 완료되면 남해안 지역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 조성 및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은홍 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산림환경 보전과 산림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이바지

구충곤 화순군수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받았다.

화순군에 따르면, 구충곤 군수는 18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하고 산림청 후원으로 이날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치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 향상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해 산림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향상과 환경보전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입법·자치·연구·교육·정책·행정·단체·기업 등 8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구충곤 군수는 화순군 전체면적의 73.2%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발전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자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 군수는 민선 6기부터 조림사업 등을 통한 산림환경 보전과 산림자원 확충, 경제림 조성과 소득사업을 통한 산림산업 육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산림복지 확대와 관광 자원화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 왔다.

화순군은 화순읍 동구리(120ha) 만연산 일대에 118억 원을 투입해 치유의 숲 센터, 오감연결길, 치유 숲길, 숲속체험

장을 조성해 치유·휴양 등 생태주기별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만연산은 '산림복지 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19만 명이 만연산 치유의 숲을 찾았고 지난해에는 29만 명, 2019년(11월 말 기준)에도 24만 명이 방문했다. 6년 동안 약 160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갔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감연결길,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아산휴양림과 한천휴양림 등 자연휴양림, 백아산휴양림, 유아숲체험원과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조성·운영하며 휴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다.

올해는 다수의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에코힐링휴양관 건립(사업비 50억),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비 14억), 의료연계형 산림치유 시설(사업비 50억)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은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등 기후와 환경 여건의 변화로 산림의 중요성, 공익적·경제적 활용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산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휴양·치유, 관광, 바이오 에너지 생산 등 미래 산림 생태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전국 제1의 산림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해남 배달대행업체 안전 무방비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체인점 배달대행업체 해남지점 바로고의 경우 직원이 8명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사고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진 상태라 할 수 있다. 또 영세한 규모의 업장이다 보

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해남읍에 거주하는 최모씨(23)는 지난 1월 배달을 가던 중 앞에서 튀어나온 여성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치료후에도 그 휴유증이 심각해 장에신청까지 할 정도라는 것이다.

체인점 배달대행업체 해남지점 바로고는 최 씨와의 계약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지난 2018년 12월초에 입사했다.

이처럼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배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와 업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인점 배달대행업체 해남지점 바로고의 관계자는 "사업이란 것도 없이 규모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법대로 다 형식을 갖춰 가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뻔뻔한 대안이 없다"고 실로 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